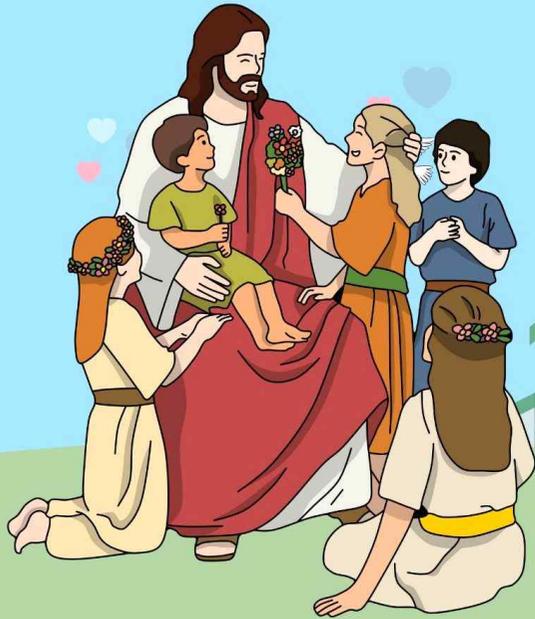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이나 대표를 뽑을 때가 있죠. 인기 있는 친구가 뽑히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생기거나, “왜 저 친구가 해?”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도 불평했어요. “왜 아론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라며 시기와 원망이 가득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셨죠. 아론은 레위 지파 대표로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라고 하셨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사람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선생님,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불평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